

수출규제 관련 일일동향(10.15)

1. 일왕 즉위식 관련

□ [동향]

- 국무조정실은 13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10월 22~24일 일본을 방문할 예정” 이라고 발표¹⁾

□ [일본 언론 동향]

- NHK는 이 총리가 지일파로 알려져 있지만,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하여 대응책 마련에 참여한 적이 있지만 구체적인 대책을 내지 못한 경위가 있어서 이번 방문을 통해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전망²⁾
- o 연합뉴스는 이 총리가 그 동안 국내 대표적인 지일파 정치인으로서 한일 갈등 국면에서 역할이 기대된 만큼 이번 방일을 계기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역할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³⁾
- 마이니치(毎日) 신문은 이 총리 측이 아베 총리와 단독회담을 추진, 일정을 조율중이라는 국내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한일 정상회담의 실현이 어려운 가운데, 지일파인 이 총리를 일본에 방문케 함으로서 타개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 논평⁴⁾

2. 한일 관계(주한 일본대사 교체) 관련⁵⁾

□ [일본 정부 동향]

- 일본 정부는 15일 각료회의에서 현 주한 일본대사인 나가미네 야스마사

1)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이낙연 국무총리, 10.22~24 일본 방문」, (2019. 10. 13).

2) 「知日派の韓国首相 天皇陛下の即位の儀式に参列」 『NHK NEWS WEB』 (2019. 10. 13).

3) 「이총리, 일왕 즉위식 참석 위해 22일 방일...아베와 만난다」 『연합뉴스』 (2019. 10. 13).

4) 「韓国：即位礼に韓国首相 安倍首相との会談模索」 『毎日新聞』 (2019. 10. 14).

5) 「新しい韓国大使に富田浩司氏 韓国駐在公使や北米局長など経験」 『NHK NEWS WEB』 (2019. 10. 15).

(長嶺安政)의 후임으로 토미타 코우지(冨田浩司)씨를 임명하기로 결정

□ [일본 언론 동향]

- NHK는 일본 정부로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북한 대응 등의 측면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 주재 경험이 있으며, 외무성에서 북미국장을 역임한 토미타씨를 기용함으로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